

중국경제 현지 전문가풀 토의자료 2001-02

# 중국의 비국유기업의 구조변화와 개혁과제

샤샤오린(夏小林)

2001.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경제 현지 전문가풀 토의자료 2001-02

# 중국의 비국유기업의 구조변화와 개혁과제

샤샤오린(夏小林)  
2001.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국 비국유기업의 구조변화와 개혁과제<sup>1)</sup>

샤 샤 오 린(夏小林)

중국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  
연 구 소 연 구 원

## 목 차

1. 서론 .....	7
2. 비국유기업의 규모와 성장추세 .....	8
3. 비국유기업의 산업별 분포 특징 .....	20
4. 결론 .....	34
◆ 참고문헌 .....	36

1) 본 보고서는 국무원체제개혁판공실 <산업과 시장체제사>, <경제체제와 관리연구소> '비국유경제연구과제팀'의 중간 보고이다. 과제는 <경제체제와 관리연구소>,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의 자금 지원과 <국무원체제개혁판공실 산업과 시장체제사>의 蔣躍과 王强, <국가공상국> 王茂卿의 도움을 받았다.



## < 요약 >

- 중국의 비국유경제는 개혁개방이후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함.
  - 21세기를 맞이하여 비국유경제는 국내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전체 규모와 각 산업별(총 39개)로 국유경제와 비국유경제를 비교해 보면 비국유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자본재 시설의 부족, 기업규모의 소형화, 낮은 자본-기술집약도, 농촌지역 편중(이로 인한 도시경제의 집중효과 향유 곤란), 외국기업과의 교류 또는 국제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임.
  -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비국유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음.
  
- 따라서 경제 전반에 걸쳐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10년내로 국유독자기업을 비국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또한 '개혁과 확장'이라는 길을 통해 비국유경제가 단기간내에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고 중공업과 중대형 기업, 자본-기술집약 업종 및 도시지역에서 크게 발전해야 함.
  - 이는 곧 21세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음.

□ 그러나 비국유경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중대형 주식제 기업, 합자기업, 특히 대형기업 등은 사실상 모두 국유지배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유주식 참여기업도 실질적으로 국유자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국유기업 제도의 자체 개혁, 국유기업 (은행 포함)개혁과 전략적인 산업별 기업분포 조정,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체제구축과 대외개방 확대 등이 필요함.

## 1. 서론

지난 20년의 개혁과 발전에서 비국유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발하는 주요 부문으로 부상하였다.<sup>2)</sup> 비국유기업의 역할이 이같이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적인 증가에 있다. 비국유기업의 양적 성장은 국유기업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상류(up-stream)산업에 집중되도록 하였으며, 자신들은 중류(middle-stream)산업과 하류(down-stream)산업에서 확장을 지속케 하였다. 이는 공업화 중반기에 있는 중국 경제성장 구도의 기본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성장하던 비국유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투입-산출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비국유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하에서 비국유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추세를 분석하고, 비국유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실증분석과 평가를 시도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은 공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단계 공업은 국민경제 성장의 주요 유발 부문이고, 또한 비국유경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일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개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2) 본 논문에서는 비국유경제를 국유독자기업 이외의 기타경제 유형으로 정의함.

## 2. 비국유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

### 1) 비국유경제의 규모

전체 공업생산량에서 비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이후 국유부문의 그것을 초과하였다. 1999년에는 공업총생산액중 비국유공업의 비중이 79.7%, 전 사회 고정자산 투자중 비국유부문의 비중은 46.6%에 달하였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90년대 중반과 후반기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국유부문의 규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① 생산액 면에서 집체경제의 비중이 가장 크고, 외자경제와 주식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경제와 개체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비국유경제의 총산출 구조중 집체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 도·농 개체경제는 22.8%, 기타경제는 32.8%이었다(그중 외자경제와 주식제경제가 98% 이상). 그러나 1990~99년 각 유형별 공업증가액중 외자경제와 주식제경제를 주체로 하는 기타경제와 개체경제의 성장속도가 집체경제를 상회(그림 2.2 참조)하였다.

그 결과 기타경제와 개체경제가 비국유경제의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포인트와 1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집체경제는 34.1%포인트 하락하였다. 2000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바 특히 경제성장을 질적 차원에서 평가할 경우, 비국유경제중 외자경제와 주식제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경제의 상대적 지위 상승은 더욱 의미가 있다.

② 투입구조면에서는 외자 및 주식제경제의 비중이 가장 큰바, 1994~98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들의 투자증가율이 집체경제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비국유경제 내부에서 외자경제와 주식제경제를 주체로 하는 기타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각 유형별 비국유경제의 증가율은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998년 비국유경제의 순고정 자산투자액 중 외자경제(43.8%)와 주식제경제(18.7%)가 총 62.5%를 차지한 반면 집체경제는 31.7%, 그외 경제가 5.8%(총자산 비중의 우선순위와 같음)였다.

한편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중 외자경제와 주식제경제를 주체로 하는 기타경제와 집체경제의 분포가 모두 공업분야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만약 이 2개 부문의 전사회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공업분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라고 간주한다면 1994~2000년 기타경제의 증가율은 집체경제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1995년, 1996년, 199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도 개체경제보다 매우 높았다(표 2.1 참조). 이는 비국유경제 내부의 기술진보 가속화와 공업구조의 고도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표 2.1〉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비교(%)

연도	집체경제	개체경제	기타경제
1994	19.1	33.5	99.4
1995	19.2	29.9	21.3
1996	11.3	25.4	23.7
1997	5.5	6.8	13.0
1998	8.9	9.2	11.6
1999	3.5	7.9	5.3
2000	9.2	9.5	9.7

주: 2000년 기타 경제의 증가율은 추정치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0), 『국가통계국(2000)』,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통계공보』

〈표 2.2〉 경·중공업중 비국유 및 국유경제 산출비중(%)

	경공업	중공업
비국유	67.3	44.5
국유	32.7	55.5

주: 독립채산기업의 증가액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총생산액에 따라 계산한 비국유경제가 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로 국유경제의 점유율에 접근함.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③ 비국유경제의 산업구조는 경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공업부문(소형 중공업 위주)의 발전이 완만하여 1990년대 중공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던 전국적 추세에 뒤져 있었다. 1980년대 비국유경제는 경공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했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표 2.2 참조). 특히 비국유경제에서 기술과 자본 집약정도가 비교적 높은 외자경제도 여전히 경공업에 편중되었는바, 총자산과 매출액중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은 각각 24.9:12.9와 26.9:13.6이었다. 이는 1990년대 중국의 중공업화 추세 강화 및 중공업에 대한 국유공업의 투입-산출 증가추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비국유경제의 중공업화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공업내 기업당 평균 자산규모가 0.1억 원에 불과하여 국유중공업의 평균 자산규모 1.2억 원과 구별 된다. 1993~97년 중공업부문 비국유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0.01억 원에서 0.03억 원으로 상승, 큰 변화가 없었다.

④ 비국유경제는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경제의 집중효과를 이용하기 힘들었다. 또한 주로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중서부 지역에서의 발전이 비교적 취약한바, 그 원인은 중서부지역에서는 비국유경제의 발전이 시장과 자원의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산출과 종업원수로 볼 때 농촌지역의 향진기업은 비국유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표 2.3 참조). 향진기업의 수도 2,000만 개 정도(그

중 80%가 개체호임)로 각 유형별 비국유기업 업체수의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분화된 유형별로 볼 때 집체기업의 산출 중 향과 촌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개체와 사영공업의 산출도 60~70%가 농촌지역이었다. 비국유기업은 지난 20년간 전국의 공업화율이 상승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공업화를 주도하였다.

〈표 2.3〉 비국유경제의 도·농분포 구조(%)

연도	생산액		자산총액		종업원	
	1985	1995	1985	1995	1985	1995
비국유공업비중	35.1	66.0	25.4	46.3	58.9	68.4
도시	17.4	23.5	13.4	26.0	26.0	18.7
향진	17.7	42.5	12.0	20.3	32.9	49.7

주: '비국유공업 비중'은 비국유공업이 전체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1995년 제3차 전국공업센서스자료회편(종합편)』

그러나 경제학 이론에서 나타나듯이 농촌지역에 폭 넓게 분산되어 있는 공업화는 도시경제의 집중효과(양호한 교통과 기타 공공기초 시설 조건, 집중된 시장, 보다 훌륭한 기술과 자본 및 인력자원 공급 등을 포함)를 향유하는데 불리하며, 효율과 자원배분, 시장확대 및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표 2.4〉 동중서부 지역의 경제유형별 공업총생산액 구조(%)

	총 합계중:						총 합계중:	
	국유	집체	사영	개체	주식제	기타	향진공업	3자공업
동부지역	27.3	39.5	2.7	11.7	3.6	15.2	45.1	19.6
중서부지역	46.9	30.9	2.2	15.0	3.2	1.8	37.1	4.4

자료: 위 표와 같음.

〈표 2.5〉 동중서부 지역의 향 및 향급 이상 공업기업의 자산구조(%)

	국유	집체	주식제	三資공업
동부지역	49.7	21.0	5.84	22.8
중서부지역	75.9	13.6	5.0	4.9

자료: 위 표와 같음.

중국의 동부 지역은 비국유경제의 주요 활동지역일 뿐만 아니라(표 2.4, 2.5), 향진기업의 발전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반면 중서부지역은 향진기업 발전은 인적자원, 기술, 기초시설, 도시화 수준 등의 면에서 자원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큰바, 향후 중서부지역의 농촌공업화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王小魯, 1999). 중서부지역의 물부족도 비국유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최근의 서부개발전략이 비국유기업의 이 지역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⑤ 비국유기업의 작은 규모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장애요인이 된다. 비국유경제는 국유경제에 비해 소형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표 2.6 참조). 1997년 전체 독립채산 기업의 공업총생산액중 비국유기업이 59.2%를 차지하였다. 기업규모로 보면(표 2.7 참조) 비국유공업의 공업산출과 투입에 대한 기여는 여전히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소기업의 생산액, 자산 및 세금납부에서 비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6%, 73.1%, 90.8%이었고, 대기업의 동일 항목에서 비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8%, 25.3%, 29.3%이었다.

〈표 2.6〉 기업규모별 비국유 및 국유공업의 비중(%)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소형 기업
비국유기업	0.6 (0.2)	1.7 (1.0)	97.7 (98.8)
국유기업	6.5 (4.7)	13.6 (13.0)	79.9 (82.3)

주: 대상기업은 독립채산기업임. 괄호안의 데이터는 1993년 비국유 및 국유공업 내부의 기업규모별 비중 반영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서 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신기술 채용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작기 때문에 높은 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자본과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의 채용은 새로운 원자재와 부품 및 유지설비를 필요로 하며 노동자들이 높은 지식과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바, 이 같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 투입은 개도국의 소기업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노동력 공급이 무한대에 가까운 농촌지대에서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기업경영자가 자본-노동비율이 비교적 높은 생산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

중국의 공업화가 중반기에 진입한 이후 성장과 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국유기업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공업구조내에서 비국유기업의 낮은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비국유기업이 공업구조 고도화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표 2.7〉 국유 및 비국유공업 중 규모별 기업의 분포 상황(%)

	업체수	총생산액	증가액	자본금	총자산	이윤세
국 유 대형기업	66.7	68.2	73.9	72.3	74.7	70.7
비국유 대형기업	33.3	31.8	26.1	27.7	25.3	29.3
국 유 중형기업	60.5	49.6	53.6	55.1	62.4	46.9
비국유 중형기업	39.5	51.4	46.4	44.9	37.6	53.1
국 유 소 기업	13.4	14.4	15.8	23.1	26.9	9.2
비국유 소 기업	86.6	85.6	84.2	76.9	73.1	90.8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독립채산기업 기준으로 산출. 1998년 대형 공업기업중 국유 기업의 업체수와 총자산 비중은 각각 60.6%와 74.21%,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이에 따라 6.1% 포인트와 0.49% 포인트 상승(聯合課題組, 1999)

그러나 <표 2-6>에 나타나듯이 최근들어 비국유경제의 규모도 점차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1993년과 비교할 때 1997년은 비국유 대기업과 중형기업의 수가 각각 1.8배와 1.2배 증가한 반면, 국유 대기업의 업체수는 1.3배 증가에 그치고, 중형기업은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다.<sup>3)</sup> 비국유 대기업의 경제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이 3차기업(1,348개), 주식제기업(729개), 집체기업(517개)에 집중되어 있고, 사영 대기업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聯合課題組, 1999).

⑥ 비국유경제의 낮은 자본-기술집약도 역시 산업구조 고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부 중대형 기업은 이미 공업기술 진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국유기업의 1인당 평균 고정자산 장비수준은 3.5만 원인데 비해 국유기업의 그것은 평균 6.9만 원이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유형별로 비국유경제의 고정자산 장비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다. 주식제, 외자, 기타부문의 1인당 평균 고정자산 장비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유형의 기업은 매우 낮았다(표 2.8 참조).

향 소속 기업과 향 및 향급 이상 3차기업, 국유공업기업을 비교하면 종업원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각각 1.2%, 6.3%, 7.9%이었다. 또한 향 소속 공업기업과 향 및 향급 이상 3차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분류되는 기술자의 비중은 각각 1.5%와 2.7%였다. 이 같은 기술장비 수준과 노동력의 구성으로부터 추측해 볼 때, 향진기업의 기술집약도도 매우 낮다고 하겠다.

한편, 3차기업과 중대형 주식제 기업중 전문대 이상 교육 받은 노동자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의 수는 향진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는 1993년에 시작된 국유 중대형 기업개혁의 가속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표 2.8〉 경제유형별 1인당 평균 고정자산장비수준(만 원)

	국 유	집 체	향 운 영	촌 운 영	도 시 합 작	농 촌 합 작	사 영	개 체	연 합 경 영	주 식 제	외 자	기 타
1인당 평균 고정자산 원가	6.9	1.9	2.2	1.7	2.1	1.8	1.9	1.4	3.9	7.5	7.4	6.4

주: 전체 향 및 향급이상과 연간 제품 매출액이 100만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1995년 전국제3차공업센서스자료회편(종합편)』

〈표 2.9〉 유형별 독립채산 대중형 기업의 과학기술 산출-투입구조

	신 제 품 매 출 액 <sup>1)</sup>	신제품 이윤세 실현액	첨단제품 매 출 액	R&D비용 지출총액
국 유	60.45	58.05	50.40	76.65
비 국 유	39.55	41.95	49.60	23.35
전체기업중 삼자기업	20.04	22.11	33.43	9.07

주 1): 국가급 신제품과 신제품의 수출액중 국유기업이 각각 64.5%와 52.53% 차지,  
비국유기업은 각각 35.5%와 47.47% 차지함.

자료: 표 1.8과 같음.

비국유경제에서도 자본과 기술집약도가 비교적 높은 중대형 기업은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다. 전체 중대형 기업중 비국유기업의 과학기술 투입과 산출 비중은 낮지만 그것의 상대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표 2.9, 2.10 참조). 최근 수년간 대형 다국적 회사들의 중국진출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표 2.10〉 유형별 중대형 독립채산기업의 과학기술 투입구조(%)

	기업기술개발기구	기술개발인력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경비지출
국유	74.78	82.17	78.86	71.36
비국유	25.22	17.83	21.14	28.64

자료: 상동

⑦ 비국유경제중 국내기업은 국제시장 진출이 낮은 반면 3자기업은 국제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0년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3자기업의 비중은 47.9%이었으며, 국유기업은 46.8%, 기타 비국유기업은 5.3%에 불과하였다. 향진기업의 수출품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대부분 노동집약형 제품 이었고 대다수가 대외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을 하였다.

⑧ 비국유기업 경영자의 능력부족도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영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은 국유 7.1%, 집체 3.6%, 사영 4.7%, 주식제 9.2%, 외국인투자 11.6%이었으며, 대졸학력은 국유 45.2%, 집체 18.6%, 사영 9.9%, 주식제 34.8%, 외국인투자 40.1%이었으며, 고등학교 혹은 전문대 학력은 국유 7.4%, 집체 25.7%, 사영 34.1%, 주식제 13.8%, 외국인투자 13.4%였다(中國企業家調查系統, 1999). 이러한 현상은 주로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형 집체 및 사영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것을 개괄하면 1990년대 중반이후 비국유경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집체경제의 산출비중이 가장 크지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 지위에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와 주식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경제는 산출비중이 낮으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② 외국인투자 및 주식제 경제의 투입 비중이 가장 큰바, 대다수 연도의 투

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들 기업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세에 있음을 말해준다. ③ 경공업과 농촌, 동부지역, 자본-기술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소기업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에 큰 변화가 없다. ④ 기술진보면에서 비국유 중대형 기업 특히 중대형 3자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⑤ 국제경쟁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국내 비국유 기업 특히 소기업의 적응력이 떨어진다. ⑥ 많은 국내 비국유 중소기업 경영자의 수준이 높지 않다.

## 2) 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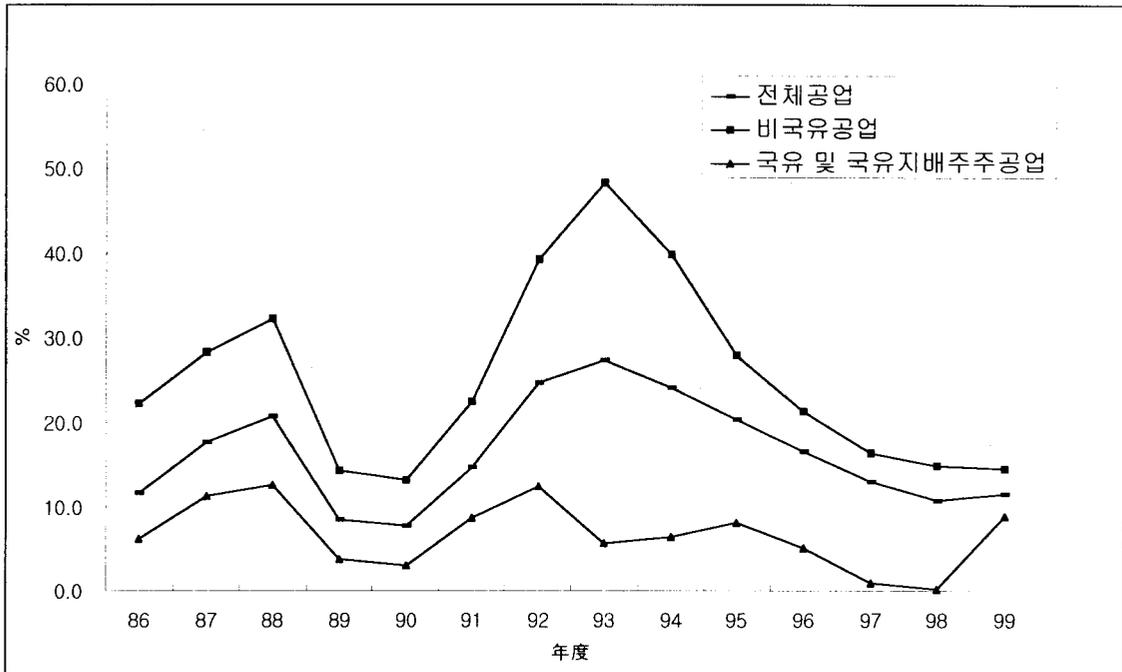
① 비국유공업의 전체 및 각 유형별 성장속도가 중국 전체 공업과 국유공업의 증가 속도를 초월하였다. 그러나 1994~99년 사이 증가율이 뚜렷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그림 2.1, 2.2 참조) 투자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공업총생산액의 증가율 하락을 유발하였다. 2000년 공업증가액의 증가속도로 볼 때 수요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단계적 성과를 이룩하면서 비국유공업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2.2% 포인트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지난 수년간 지속된 증가율 하락세를 반전시켰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의 비국유공업의 침체는 향진기업 및 외자기업의 부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3년에 비해 1995년의 향진기업의 생산증가율은 24.9%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외자기업의 생산증가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sup>4)</sup> 그러나 대형 외자기업의 상황은 중소형 기업보다 호조를 보였다.

---

4) [그림 2.2]참조. 외자와 홍콩·마카오·대만투자 기업 중심의 기타공업은 총생산액 증가율이 하락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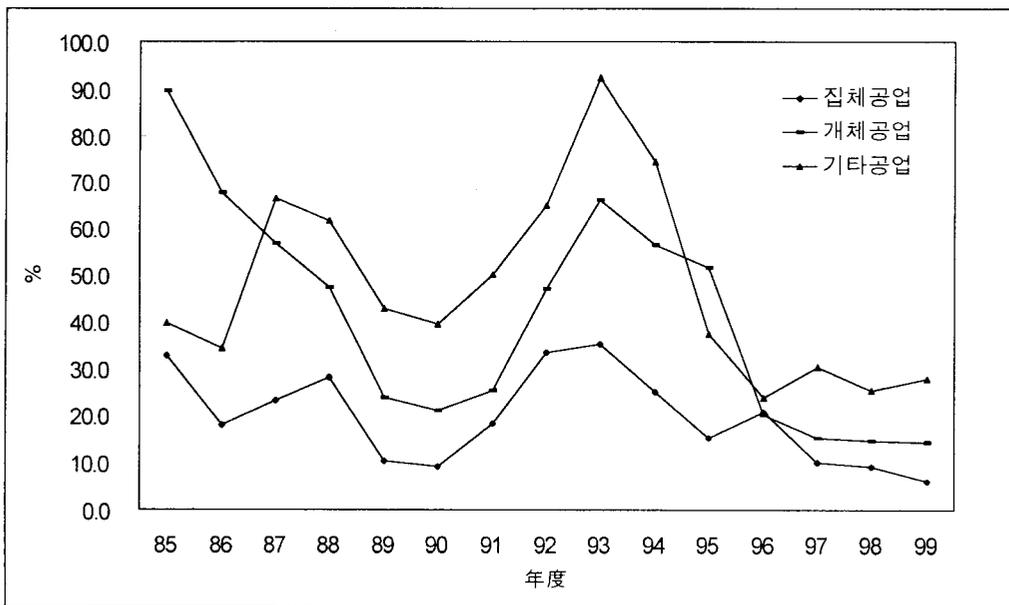
[그림 2.1] 기업 형태별 총생산액 증가율 비교 및 추세(%)



주: 비국유 공업은 집체와 도·농개체 및 기타 유형 공업을 포함. 비국유 공업의 증가속도는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의해 추산한 것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0).

[그림 2.2] 각 유형별 비국유공업의 총생산액 증가율 변동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0).

② 공업총생산액의 증가속도에서 비국유공업의 기여도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중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집체기업의 지위가 1994년 이후 하락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국유경제의 빠른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업총생산액의 증가속도에 대한 비국유공업의 기여율은 1982년 32.8%에서 1997년 90% 안팎으로 상승하였다. 비국유기업중 집체기업 특히 향촌집체기업의 공업생산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공업총생산액 중 집체기업의 비중이 기타 기업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비국유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지방의 도시화 진전이 늦어, 많은 향진 집체기업이 도시경제의 집중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농촌공업화는 전국적인 공업화를 가속화시켰으나, 도시화의 낙후로 인한 문제점(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③ 비국유기업은 질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국유부문의 투자효율은 국유부문보다 높고(武劍, 1999년), 그 밖의 경제효율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張曉晶, 1999). 그러나 비국유기업이 주로 농촌과 소기업, 자본기술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복 건설사업이 많고, 공해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

비국유기업의 제품 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품질기술감독국에 의하면 1998년 소기업 제품의 평균 합격율은 70.3%, 개체와 사영기업은 63.1%, 향진기업은 71.2%로 전체 기업의 평균 합격율인 77.8%보다 낮았다.

이러한 비국유기업의 낮은 제품 질은 국제경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국제

---

5) 그러나 1997년에는 3자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부문의 기여율이 집체공업의 그것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夏小林, 1999년).

경쟁력의 제약으로 비국유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990년대 대부분의 연도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였다(夏小林, 1999). 비록 2000년 들어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2001년 전반적인 수출기조가 2000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국유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었을 때에는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국기업 진출과 상품의 수입이 가속화 되면 노동집약형 제품의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기존의 대다수 비국유 내자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3. 비국유기업의 산업별 분포 특징

비국유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비국유경제의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지역, 현대부문, 중대형기업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독자기업의 체제개혁을 통해 비국유경제의 분포를 더욱 완비 및 확장시키고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강화 및 완비시켜야 한다.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과 자산개편 문제는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39개 산업을 대상으로 비국유경제 및 국유경제의 분업구도를 기술하면서 그것의 형성 메커니즘과 변동추세를 논의해 본다.

## 1) 비국유기업의 산업별 분포 추세

1981~97년: 장기 변동에 의해 형성된 분업구도와 추세. 동 기간중 공업의 업종구분 기준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은 기본적인 특징만을 반영한다. 보다 정확한 추세분석은 1993~97년의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기본적인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새로운 통계기준으로 인하여 이전 연도와 같은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개별적인 총량 지표에서 동 기간중 비국유경제 분포 변동의 대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 12개 공업업종 중 비국유경제의 산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 업종이 3개, 50% 이하인 9개였으며, 1997년은 산출 비중이 50% 이상 산업이 8개, 50% 이하가 4개이었다(표 3.1 참조). 16년간 비국유경제 분포의 변동 추세로 볼 때 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종에 집중되었다. 반면 국유경제 분포의 추세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업스트림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반면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경쟁성 업종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경쟁성 업종에서 비국유기업의 평균 규모는 국유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바, 이는 비국유경제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에 대량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 업종중 자본-기술비중이 높은 중대형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이는 국유경제가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경쟁성 업종에서 범위를 축소하는 한가지 방식이다. 이같은 분업구도의 형성은 비국유경제가 장벽이 비교적 낮고 중소 기업의 발전에 적합한 경쟁성 업종에 진입함에 있어서 비교적 강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으며, 여타 분야에서는 진전이 비교적 완만함을 설명해 준다.

〈표 3.1〉 1981~97년 12개 주요 업종별 비국유경제 산출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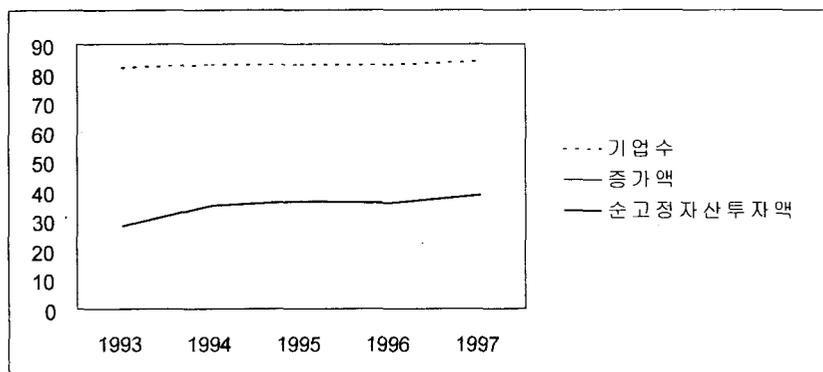
	야금	전력	석탄	석유	화공	기계	전자재	식품	방직	의류	피혁	제지
1981	14.8	3.8	34.7	14.6	13.8	23.9	53.5	24.9	17.3	83.2	59.6	43.5
1997	34.7	27.4	26.5	13.5	53.5	70.9	75.4	64.0	68.4	94.9	93.8	73.9
증감액	19.9	23.6	-8.2	-1.1	39.7	47	21.9	39.1	51.1	11.7	34.2	30.4

자료: 張春霖, 『국유경제 분포조정에 관한 약간의 이론과 정책문제』, 『경제연구』 (1999), 8기 참조. 『중국통계연감』 (1981, 1998)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1993~97년: 39개 산업별 단기변동 추세. 1993년 중국은 산업분류방식으로 국제적인 통용방식을 채용하였다. 1995년 '15기 당대회'는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보장하고 절대 규모를 축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비국유경제의 분포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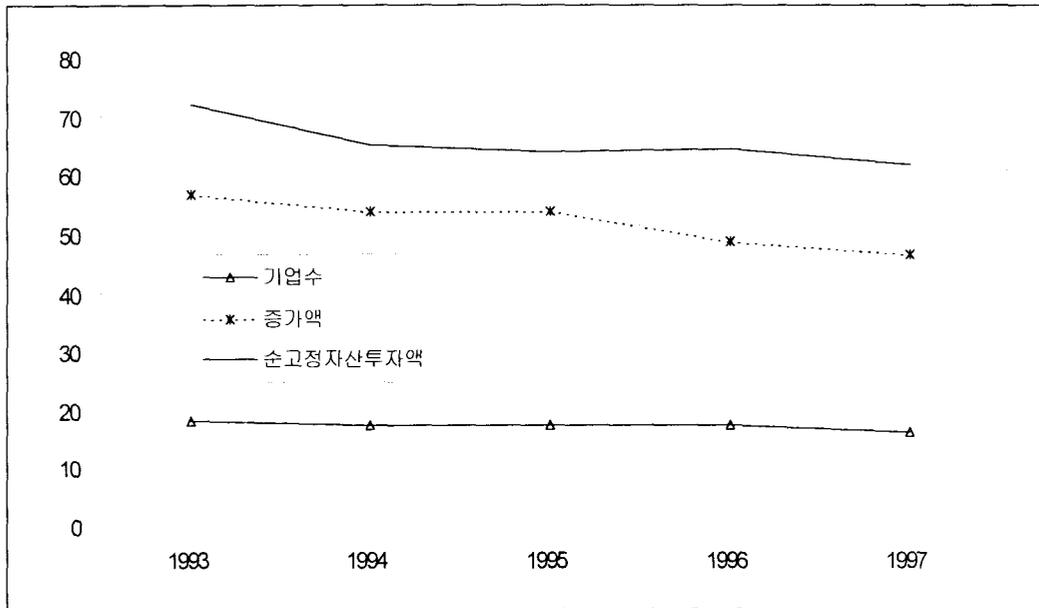
39개 산업별 분포의 변동추세. 1993년과 비교할 때 1997년은 독립채산 기업중 비국유기업의 수, 공업생산증가액 및 순고정자산투자액의 비중이 각각 2.06, 10.34, 10.36% 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유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3.1, 3.2 참조).

[그림 3.1] 비국유기업의 비중 변화 추세(%)



주: 1994~98년, 독립채산기업의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자료: 『중국통계연감』

[그림 3.2] 국유기업의 비중변화와 추세(%)



주: 1994~98년, 독립채산기업의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자료: 『중국통계연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3~97년 비국유기업의 수, 증가액 및 순고정자산투자액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였고, 1995년 이후 그 추세가 더 빨라졌다. 또한 공업 생산증가액과 순고정자산투자액 비중의 상승이 업체 수의 증가세보다 빨랐는바, 이는 기업의 효율증가와 업체당 평균 규모 확대 및 분포확장을 잘 설명한다. 반면 국유기업은 증가액과 순고정자산투자액면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각 유형별 시장구조 중 비국유경제와 국유경제 분포 및 변동 추세. <표 3.2>와 <표 3.3>은 독점산업과 경쟁산업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비국유경제와 국유경제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의 독점업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각 유형별 독점적 산업중 비국유 및 국유경제의 분포(%)

업종	업체수		공업생산증가액		순고정자산투자액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b>고수준의 독점형</b>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업	62.65	37.35	96.13	3.87	98.10	1.90
<b>중등 수준의 독점형</b>						
석유가공 및 제련업	14.98	85.02	81.59	18.41	88.13	11.87
<b>저수준의 독점형</b>						
석탄채굴업	15.70	84.30	78.34	21.66	91.72	8.28
흑색금속광 채굴업	11.96	88.04	39.83	60.17	71.39	28.61
연초가공업	72.61	27.39	97.87	2.13	94.52	5.48
화학섬유제조업	15.79	84.21	19.95	80.05	34.48	65.52
고무제품업	12.12	87.88	29.25	70.75	38.09	61.91
흑색금속제련및 압연가공업	14.96	85.04	75.01	24.99	83.83	16.17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9.88	80.12	44.57	55.43	64.31	35.69
전력중기열수생산공급업	36.80	63.20	73.87	26.13	71.86	28.14
가스생산과 공급업	71.47	28.53	63.76	36.24	95.77	4.23
수도물생산과 공급업	43.31	56.69	85.65	14.35	88.85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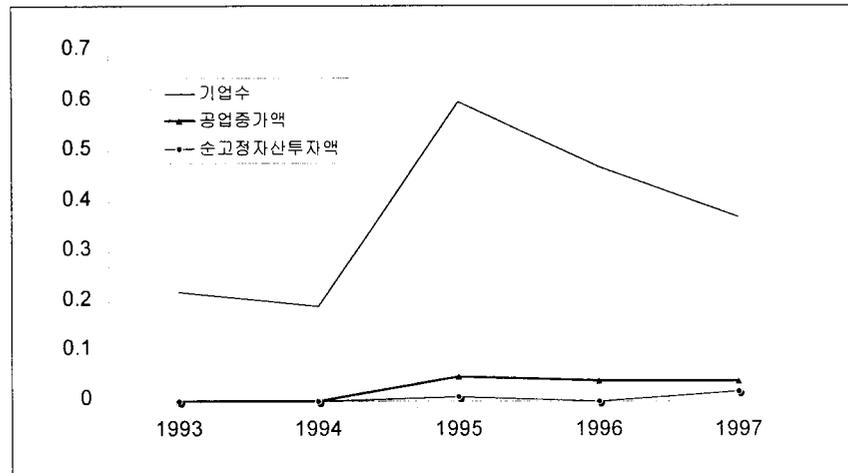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독립채산기업의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독점 업종과 표 3-3의 경쟁업종의 구분: 산업별 8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로 집중도를 표시함.

曹建海, 『중국 공업의 과도경쟁에 대한 실증 분석』, 『改革』(1999. 4),

劉富江·朱金渭, 『중국 국유공업업종의 발전 현황 및 구조조정 연구』, 『管理世界』(1999. 6).

[그림 3.3] 고수준의 독점산업중 비국유경제 진입추세(%)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독립채산기업의 수치에 근거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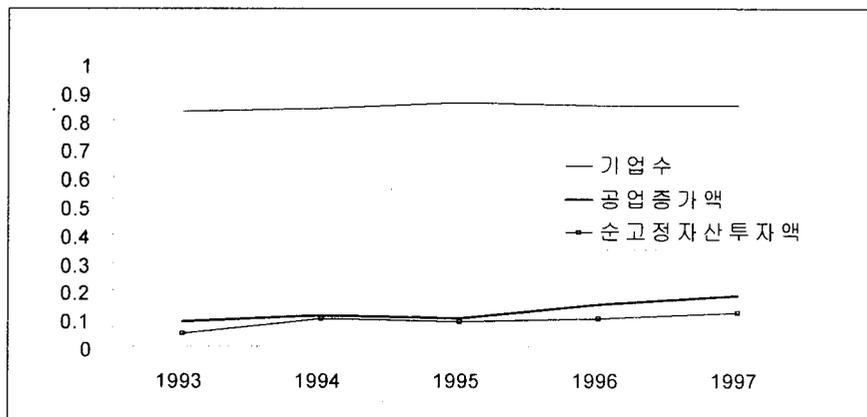
①  $CR_8 \geq 70\%$ 인 고수준의 독점산업에서 비국유경제의 투입과 산출 비중이 가장 낮 으며, 각각 1.9%와 3.9%로 발전이 완만하였다. 1995년 이후 업체 수와 산출 비중이 하락하고, 1개 업체당 평균 규모는 소폭의 상승(그림 3-3)을 보였는바, 1997년 1개 업체당 평균 순고정자산투자액은 약 2.2억 원이었다.

②  $40\% \leq CR_8 < 70\%$ 인 중등수준의 독점산업에서는 공급자 시장의 산물인 상대적 으로 큰 시장규모, 산업정책의 미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물류인프라의 부족 등 으로 대량의 신설 기업이 최저규모의 방식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이론과 국제경험의 측면에서 당연히 높 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동 업종에서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85%에 도달, 업체당 평균 순자산은 902만 원에 그쳤는바, 이는 규모의 경제 산업이 갖 추어야 최소 및 최적의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난다. 국유기업은 업체수가 적지만 한 기업당 평균 순자산이 2.8억 원에 달해, 업종내 생산증가액과 순고정자산투자 액에서 각각 81.6%와 88.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비국유경제는 1995년 이 후 업체수는 하락하였으나 생산량과 기업당 평균 순자산은 다소 증가하였다(그림 3.4 참조).

③  $20 \leq CR_8 < 40\%$ 인 10개 저수준의 독점경쟁형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등의 원인으로 많은 비국유기업이 진출하였다. 그 중 비국유기업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0%인 업종이 4개, 순고정자산투자액이 60%를 초과한 업종이 2개였다. 그러나 이같이 규모의 경제 효율이 뚜렷한 업종에서도 비국유기업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매우 작았다. 10개 업종중 평균 순자산 규모가 130~643만 원인 기업이 5개, 1,000~1,900만 원인 기업이 4개, 4,264만 원인 기업이 1개로 동 업종 중 국유기업의 1개 업체당 평균 규모에 비해 수배에서 10배 이상 낮았다(화학섬유업은 격차가 비교적 작음).

[그림 3.4] 중등수준 독점업종 중 비국유경제의 진입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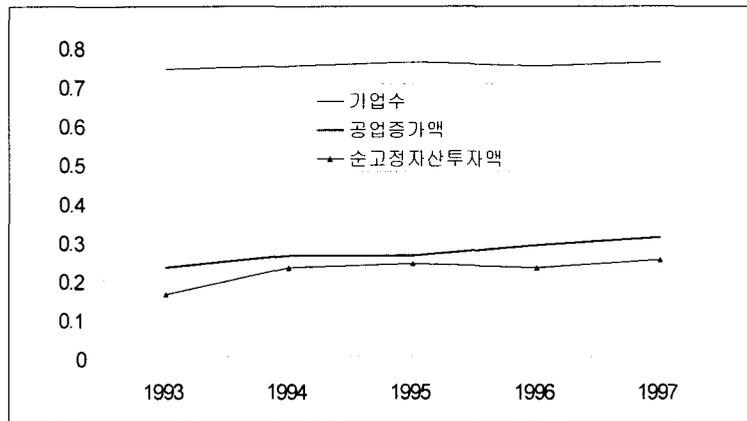
자료: 상동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비국유기업이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통운수, 고무 및 화학업종에서 비국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주로 합자기업). 공공서비스 성격을 띤 업종에서도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저수준의 독점경쟁형 산업에서는 비국유기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5 참조).

이상과 같이 3가지 상이한 독점유형별 산업으로 분석해 볼 때 독점정도가 낮아지면서 비국유경제의 분포범위가 확장되고, 그 확장속도도 독점정도의 하락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시장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비국유경제의 업종진입이 규모경제의 장벽과 자금장벽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경제가 상대적 과잉단계에 들어섰지만, 국유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이 갈수록 하락하였기 때문에 비국유 소기업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3.5] 저수준의 독점산업중 비국유경제의 진입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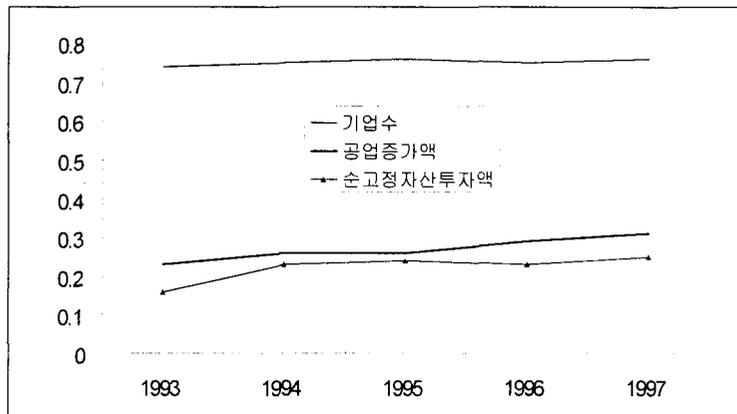
자료: 상동

일부 국유 대기업이 체제개혁을 통해 주식 상장을 하고 기타 유형별 비국유경제 중대형 기업의 업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독점업종에서 비국유경제의 분포는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에 이르러 전체 12개 독점산업 중에서 비국유기업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한 산업이 9개로 독점산업의 75%를 차지하였고, 증가액이 50% 이상인 산업은 4개로 33.3%를 차지했으며, 순고정자산투자액이 50% 이상인 산업은 2개로 1.6%를 차지하였다. <표 3.3>은 비독점 경쟁형 산업에서 국유와 비국유기업의 분포를 나타낸다.

④  $CR_8 < 20\%$ 인 27개 비독점 경쟁형 산업은 비국유경제가 활발하게 진입한 분야이다. 비국유기업이 전체규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중대형 핵심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 업체 수에서 목재 및 대나무재료 채벌운송업의 경우만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38.3%이고, 기타 업종은 모두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 공업생산증가액의 경우 유색금속채굴업(48.5%), 목재 및 대나무재료 채벌운송업 (4.7%),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45.1%) 등 3개 업종만 비국유기업 비중이 50% 이하이고 나머지 24개 업종의 비중은 모두 50% 이상이었는데, 그 중 대다수가 70~9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순고정자산투자액면에서 10개 업종의 비국유기업 비중이 1.5~48% 이었고, 나머지 17개 업종은 모두 50% 이상(그중 10개 업종은 60%이상)이었다.

[그림 3.6] 비독점 경쟁산업의 비국유경제 진입 추세(%)



자료: 그림 3.5와 같음.

<표 3.3> 비독점 경쟁형 업종 중 비국유 및 국유경제의 분포(%)

업종	업체수		공업생산증가액		순고정자산투자액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유색금속광물 채굴업	21.91	78.09	51.65	48.35	77.70	22.30
비금속광물 채굴업	9.05	90.95	28.60	71.40	63.80	36.20
기타광물 채굴업	16.26	83.74	20.62	79.38	46.84	53.16
목재 채굴 및 운송	61.74	38.26	95.28	4.72	98.54	1.46
식품가공업	28.81	71.19	34.50	65.50	58.54	41.46

<표 3.3 계속>

업 종	업체수		공업생산증가액		순고정자산투자액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국유	비국유
식품제조업	28.59	71.41	23.26	76.74	37.03	62.97
음료제조업	21.53	78.47	48.70	51.30	47.75	52.25
방직업	15.52	84.48	30.48	69.52	46.53	53.47
의류 및 기타섬유제품제조	5.43	94.57	5.27	94.73	10.06	89.94
피혁, 모피 및 그 제품	6.89	93.11	6.05	93.95	17.30	82.70
목재가공 및 나무제품	7.46	92.54	12.55	87.45	34.03	65.97
가구제조업	6.00	94.00	6.19	93.81	13.90	86.10
제지 및 종이제품업	11.73	88.27	25.88	74.12	41.15	58.85
인쇄업기록매체 복제	21.97	78.03	40.52	59.48	51.29	48.71
문교체육용품 제조업	8.43	91.57	7.55	92.45	12.12	87.88
화학원료 및 제품제조업	18.05	81.95	43.88	56.12	68.98	31.02
의약제조업	35.30	64.70	36.57	63.43	51.48	48.52
플라스틱제조업	7.90	92.10	8.86	91.14	17.33	82.67
비금속광물 제조업	10.67	89.33	25.07	74.93	41.71	58.29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5.41	84.59	54.86	45.14	72.69	27.31
금속제조업	7.87	92.13	11.88	88.12	20.35	79.65
일반기계제조업	13.60	86.40	33.78	66.22	51.87	48.13
전용설비제조업	21.19	78.81	41.11	58.89	62.69	37.31
전기기계 및 기기제조업	12.76	87.24	18.47	81.53	28.80	71.20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18.33	81.67	23.80	76.20	34.55	65.45
측정기구·문화사무용품·기계	19.56	80.44	28.15	71.85	52.01	47.99
기타 제조업	6.05	93.95	4.75	95.25	12.34	87.66

자료: 표 3.2와 같음.

경쟁성 산업과 독점성 산업을 비교할 경우, 경쟁성 산업에서 비국유경제의 발전이 가장 빨랐다(그림 3.6 참조). 1995년 이후 비국유경제의 투입산출 비중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국유경제가 경쟁성 산업 내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일부 업종에서는 양적인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업을 예로 들 경우, 2가지 업종의 생산증가액 중에서 비국유경제의 비중이 이미 81.5%와 76.2%를 차지하였고, 순 고정자산투자액 비중은 각각 71.2%와 65.5%를 차지하는 등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

1993~97년 전기업종의 산출과 투입에서 비국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3%와 58.4%에서 891.5%와 71.2%로 상승하였다. 또한 전자업종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64.8%과 53.5%에서 76.2%와 65.5%로 상승하였다. 기업의 규모 또한 증가하였는바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자본-기술집약형 중대형 기업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쟁형 산업에서도 비국유경제의 소형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27개 업종 중 채굴업에 속하는 4개 업종의 경우, 한 기업당 평균 순자산 규모가 99~220만 원인데 비해 국유기업은 410~1,846만 원이었다. 제조업은 23개 업종 중 의약과 전자 등 2개 업종만 1개 업체당 평균 순자산 규모가 1,419만 원과 1,910만 원이었고 나머지 21개 업종의 1개 업체당 평균 순자산 규모는 125~750만 원이었다. 반면 국유기업의 의약, 전자 2개 업종은 각각 16.07만 원과 3,327만 원, 기타 21개 업종은 200~6,537만 원이었다. 27개 업종 중 식품제조와 문교체육용품 제조업에서만 비국유경제의 1개 업체당 평균 순자산 규모가 각각 국유부문보다 약간 높았다.

1998~2001년: 국유경제 개편과 체제개혁 및 분포조정 가속화. 1994~96년은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기업의 수가 늘어났으나 1999년에는 1997년 대비 4.87만 개 감소하는 대폭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2000~01년 1/4분기에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생산증가액 중 국유기업의 비중이 뚜렷하게 하락하여, 2000년 국유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8.2% 포인트 하락하였다. 2001년 1/4분기는 전년 4/4분기대

비 6.2% 포인트 하락하였고, 비국유기업의 생산증가액 비중은 1999년의 52.4%에서 66.8%로 상승하였다(국유지배주주기업 포함). 따라서 동 기간중 국유경제의 범위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국유경제의 확장도 이에 맞춰 가속화되었다. 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동 기간 국유경제의 위축은 여전히 일반생산 가공업과 중소기업(李建興, 1999)에 집중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2년간 비국유경제의 확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5년전의 발전방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바, 즉 비국유기업이 여전히 경쟁성 업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2) 비국유경제의 확대와 제약조건

### ① 효율우위

39개 업종에서의 비국유경제의 확대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진입규제의 완화, 국민소득 분배구조 변화, 선진국으로부터의 산업이전, 농촌공업화의 급속한 발전, 장기화된 공급자 위주의 시장환경 등이다. 비국유경제의 투자효율과 경제효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비국유경제가 많은 업종에서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바탕이다.

1999년 국민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6~97년 사이 비국유기업의 투자효율이 국유기업에 비해 모두 높았으며, 1997년 비국유기업(집체와 개체경영)의 평균 투자효율은 국유경제 부문의 14.6배이었다(武劍, 1999). 동 연구소의 또 다른 보고서는 국유경제와 비교할 때 비국유경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지적하였다(張曉晶, 1999. 표 3.3 참조).

39개 업종별로 구분한 판매이윤율과 총자산이윤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에는 업종별로 비국유경제의 효율이 비교적 좋았다. 그 해 25개 업종에서 비국유경제의 판매이윤율과 총자산이윤율은 모두 증가를 시현하였으나, 국유경제는 감소하였다. 나머지 14개 업종에서는 비국유부문과 국유부문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국유부문의 지표는 연초와 음료 2개 업종에서만 높았을 뿐 나머지 업종에서는 비국유기업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비국유경제가 전 업종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잠재력도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국유경제의 확장은 산업전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할 것이다.

〈표 3.4〉 경제유형별 기업의 경제효율 비교(%)

경제유형	시 장 점유율	이윤세 점유율	노동생산 성(원/인)	원가대비 이윤율	총자산 수익률	순자산 수익률	자 산 이윤세율
국 유	49.31	56.91	18,985.0	2.72	8.72	4.10	8.01
사 영	0.25	0.33	25,713.7	2.56	18.51	24.58	17.06
주식제	5.10	7.24	31,435.9	8.23	10.68	10.27	11.33
3 자	17.04	13.89	36,154.6	4.15	8.22	7.43	7.48

자료: 국민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성장의 지속성과 제도변혁” 과제팀

張曉晶,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의 안정 성장』, 표7

『1995년 제3차 전국 공업센서스 자료 회편』에 근거하여 정리.

## ② 제약조건

비국유경제의 확장은 절대적인 규모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자산총량이 작고, 투자자가 분산되어 있으며, 프로젝트가 작고, 다수 경영자의 지식수준이 낮으며, 이는 중화학공업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재편 과정에서 비국유기업에 불리한 기능을 한다.

- 자산구조가 집체기업과 국유지배주주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은 이미 총 자산 규모가 작은 비국유경제의 국유공업부문 진입을 위한 자산기초를 더욱 축소시켜 자본집약형 비국유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1998년 비국유기업의 순고정자산투자액 중 분류기준이 애매한 집체부문의 자산(12.2%)을 제외하면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26.3%이며, 여기에 국유지분(10.9%)까지 제외하면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15.4%에 불과하다. 이같은 '15.4%'로는 총량면에서 합병이나 매입을 통한 기업의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의 사례와 같이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려고 해도 도입할 자금이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저기술, 노동집약형 소기업 중심의 경공업 또는 소형 중공업이 고기술, 자본집약형인 대형 국유기업과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 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바로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張春霖, 1999), 결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겠다(丁大華, 1998).
- 분산되고 낙후된 농촌공업은 도시의 대형 국유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공업은 바로 집체, 개체, 사영기업이 집중된 분야이며, 국내 비국유기업이 집중된 주요 분야이다.
- 외국대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 혹은 이들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상 허용되기 어려우며, 국내 비국유기업도 '민족자본' 보호의 명목으로 반대하며 시장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모순은, 경제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미시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유부문의 개혁을 통한 비국유경제의 영역 및 규모 확대가 요구되지만, 현재 비국유경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영역 및 규모 확대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비국유경제가 우선 내부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10년안에 자체적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보다 간편한 길은 국유독자기업이 체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재산권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유경제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유독자기업의 업종범위를 축소하고 진입과 퇴출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국유경제의 영역 확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완비하는 것이다.

#### 4. 결론

- 지난 20년간 비국유경제의 규모 확대는 경쟁성 산업과 독점수준이 비교적 낮은 업종에서 비국유경제의 집중현상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성 산업의 전체적인 투입과 산출에서 양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 중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간의 선도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이같은 비국유기업의 확장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비국유경제가 대다수 업종에서 국유경제의 경제수익과 효율을 초월하고 있는 것은 비국유경제의 업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 지난 20년간 비국유경제의 영역 확대 메커니즘은 정부의 현명한 국유기업 개혁 및 시장개방 정책, 자원분배에 대한 시장의 역할 확대, 시장경쟁 강화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90년대 중·후반기에 정부는 더욱 자발적으로 국유경제의 전략적 규모 조정, 범위 축소와 시장제도 구축 및 적극적인 WTO 가입 등을 추진하였는바, 이 같은 정책

은 향후 비국유경제의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만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전략적 문제는 비국유경제의 양적 우위 및 업종확장의 배후에서 구조적 결점이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량(flow)과 저장(stock)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점은 유량이다. 유량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지름길은 바로 국유 중대형 기업의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만일 향후 10년안에 보다 많은 국유 중대형 독자기업이 주식제기업과 합자기업 등으로 전환된다면, 비국유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기간 보다 많은 외자유입도 이 같은 결함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량 측면에서 중소형 도시 및 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형 국내 비국유기업의 발전 및 향·촌의 비국유기업이 규모 확대와 기술 축적 과정에서 도시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량 해결의 경로와 비교할 때 이는 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분명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차원에서, 비국유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수정하는 경로를 선택할 때 우선 유량을 해결함으로써 단기간내에 경제성장의 미시적 기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장의 해결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1981—2000年，中國統計出版社。
- 國家統計局 《200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2001年3月。
- 國家統計局 《1995年第三次全國工業普查資料匯編》綜合，行業卷，國有，三資，鄉鎮卷，中國統計出版社1997年版。
- W·W·羅斯托編著：《從起飛進入持續增長的經濟學》，四川人民出版社1988年版。
- 世界銀行：《從計劃到市場》，《中國2020年》，中國財政經濟出版社1996年8月版，1997年9月版。
- 國際金融公司：《中國私營企業研究》，2000年，打印稿。
- 王小強：《超越私有化邏輯》，《進入21世紀的嚴峻挑戰》，《未來與選擇——參閱文稿》1995年5期，1997年12期。
- 郭克莎：《工業增長質量研究》，經濟管理出版社1998年2月版。
- 吳敬璉等：《國有經濟的戰略性改組》，中國發展出版社1998年1月版。
- 聯合課題組（國家統計局工交，綜合司，管理世界雜誌）《經濟發展，體制轉軌，對外開放與中國大型工業企業的成長》，《管理世界》1999年5期。
- 夏小林：《非國有經濟增幅連年回落實證分析》，《改革》1999年4，5期。
- 王小魯：《農村工業化對經濟增長的貢獻》，《改革》1999年5期。
- 中國企業家調查系統：《迎接知識經濟挑戰：世紀之交的中國企業經營者》，《管理世界》1999年4期。
- 夏小林，李路路：《中國工業私營企業：背景，現狀與前途》，《改革》1998年4，5期。
- 李建興：《我國國有經濟持續穩步發展》，《人民日報》1999年8月7日。
- 張曉晶 《宏觀經濟政策與經濟穩定增長》，1999年，北京國民經濟研究所內部文稿。
- 武劍：《儲蓄，投資和經濟增長》，1999年，北京國民經濟研究所內部文稿。
- 張春霖：《國有經濟布局調整的若干理論和政策問題》，《經濟研究》1999年8期。
- 曹建海：《對我國工業中過度競爭的實證分析》，《改革》1999年4期。
- 劉富江，朱金渭：《我國國有工業行業發展狀況及其結構調整研究》，《管理世界》1999年6期。
- 方甲等：《產業組織理論與政策研究》，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3年2月版。
- 盛華仁：《國企效益全面大幅回升》，《經濟參考報》1999年12月25日。
- 江小涓 《國企改革新方案几大進展》，《財經時報》1999年12月15日，  
《既是誤解又太簡單化了》，《經濟日報》2000年1月4日。
- 丁大華：《論投資銀行與中國現代企業制度建設》，碩士論文1998年。